

멜라민 함량초과 식품 수출 제한

WHO, 식품안전 허용기준 마련 ... 함유량 kg당 2.5mg으로 규제

앞으로 멜라민 허용치를 초과하는 식품은 수출이 제한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식품안전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일반 식품과 유아식의 멜라민(Melamine) 함유 허용 기준치를 규정한 국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 연례회의에 참석한 130개국 대표들은 7월6일 일반식품의 멜라민 함유 허용기준치를 1kg에 2.5mg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유아식 기준치는 1kg에 1mg으로 더 엄격하다.

WHO 전문가 안젤리카 트리셔는 “새 기준치가 낮은 수준이나마 식품 내 멜라민 함유를 허용하고 있는데 재배 과정에서 살충제 사용, 플라스틱 용기, 냅킨 등 식탁용품과의 접촉에 의해 있을 수 있는 정도”라며 “인체는 낮은 수준의 멜라민을 처리할 능력이 있어 건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새 멜라민 기준치는 법률적 강제력이 없지만, 각국은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는 멜라민의 수입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멜라민은 플라스틱과 비료, 콘크리트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2008년 중국에서는 유아용 유제품에 멜라민이 다량 함유돼 약 30만명이 감염되고 6명이 사망하는 파동이 일어났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7/07>